



번식용 수퇘지의 이용 및 간신요령



김 찬 채
(본회 안양 · 시흥지부장)

1. 미숙 수퇘지의 관리

가. 수퇘지는 월령에 따라 분만율 및 산자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

나. 외부에서 도입한 돼지는 식욕이 감퇴되지 않게 도입전 농장에서 급여하던 사료를 가급적 급여하고 교체할 때에는 서서히 최소한 1주간의 간격으로 비율을 높여가며 교체해야 한다.

다. 도입된 돼지는 최소 3주 간 격리 돈방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 상재하고 있는 질병에 대항할 면역성을 형성케 한다.

라. 도입 수퇘지는 즉시 모돈과 같이 콜레라, 돈단독, 파보바이러스, 헤모필루수, 위축성비염, 전염성 위장염등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계절에 따라 일본뇌염 백신접종은 잊어서는 안된다.

마. 특히 수퇘지는 귀나 고환에 생기는 개선충 구충에 주의한다.

바. 번식기 주위를 항상 소독수로 청결히 해주어야 한다.

2. 미숙 수퇘지의 훈련과 주의사항

가. 최초의 암수 접촉은 철망을 사이에 두든지 합사해도 좋다. 특히 발정이 온 암퇘지 옆방에 두면 좋다(냄새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나. 승가 연습을 많이 시켜야 한다.

예를들면 사료통을 약 40cm 높여 두어 사료를 먹을 때 올라가는 연습(뒷다리 훈련)을 시키면 승가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돼지보다 사료를 늦게 주어 몇번씩 오르내리면 다리운동이 된다.

다. 웅돈은 애정으로 다루어야 한다. 난폭하게 다루면 성질이 나빠져서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며 대항하는 벼룩이 생긴다.

라. 미숙 웅돈은 성질이 거친 웅돈이나 모돈 옆에 배치하지 말 것.

마. 최초 종부시에는 자신을 갖게 잘 허용하는 경산돈을 사용하며 승가하기 좋은 위치로 암퇘지를 유도하고 어린 수퇘

〈표1〉 수퇘지의 월령에 따른 분만율 및 산자수

월령	7	8	9	11	13	15	17	21
분만율 (%)	76	77	79	83	86	90	94	95
산자수(두)	10.5	10.9	11.2	11.3	11.6	11.8	12.0	12.4

〈표2〉 수퇘지의 표준일령과 필요 영량

체 중(kg)	100	150	200	250	300	350
1 일 증 체 양	500	400	300	200	100	50
Cal/일	6,800	7,700	8,500	9,000	9,800	10,000
급여량/(kg/일)	2.25	2.5	2.75	3.0	3.2	3.4

지를 가능한 편안하고 쾌적하게 해준다.

바. 미숙 웅돈이라 하여 사람 이(꼬리를 잡고 밀거나 삽입 보조등) 도와주면 나쁜 버릇이 생긴다. 오히려 내려올때 충격을 받지 않게 교배장 바닥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 내려올때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미끄러져 고통을 주면 다음에는 승가 기피성이 생기므로 가급적 흙바닥에서 경험을 시키는 것이 좋다.

아. 너무 여위거나 과비를 피해야 하되 열량이 부족하면 성성숙이 늦어지며 승가도 기피한다.

자. 돈방 온도는 20°C를 유지한다. 온도가 20°C이하일 경우 1°C가 떨어질 때마다 사료를 3% 중량 급여한다.

3. 성성숙 수퇘지의 관리

가. 웅돈사의 면적은 3m×3m 이상을 요한다. 최근 외국에서는 4m×4m를 요구하다. 좁은 웅돈방은 정액생성이 나빠져

평균 분만율이 2~4% 감소되며 산자수도 복당 2두 정도 적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나. 추운 겨울에 종부시(15°C 이하에서)는 따뜻한 한낮을 택해야 한다.

다. 더운 여름철에는(26°C 이상) 아침 시원할 때를 택해야 한다. 상기 조건은 웅돈 정자의 활력과 승가욕이 떨어지며 3~4일 지속시는 산자수가 약 50% 까지 떨어진다.

라. 종돈의 적절한 월령은 15~23개월령일때 분만율이 가장 높다. 농장에 고령 웅돈이 많으면 분만율이 떨어진다.

마. 웅돈의 운동부족은 활력을 저하시킨다. 후보 웅돈은 돈방에서만 사육하면 운동부족으로 후구가 약해지며 승가능력이 떨어진다. 고로 방목장을 마련하여 충분히 운동을 하게 한다.

바. 돼지는 냄새로 이성을 식별하며 웅돈은 암퇘지의 냄새로 종부적기를 판단한다. 고로 이유모돈 인접돈방에 웅돈을 배치하면 모돈의 재귀발정을

관리자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므로 미약 발정모돈의 재귀발정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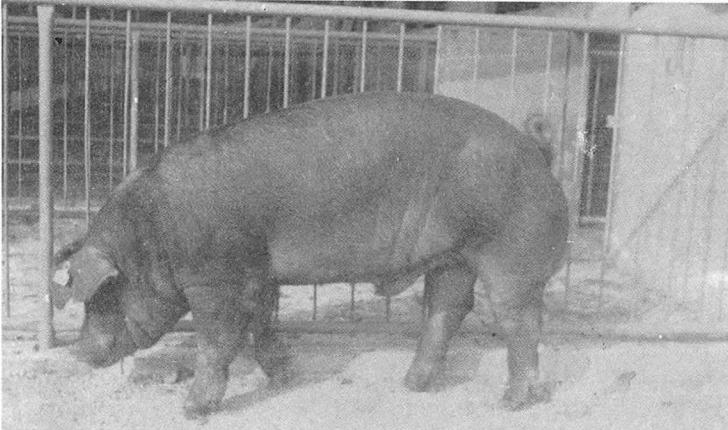
사. 돼지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특히 웅돈은 매를 맞았거나 심하게 다루어진 경험이 있으면 달아나든지 때로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덤벼들기도 하고 물기도 한다. 반면 관리자가 애정으로 다루면 친숙해지며 스트레스의 감소로 번식능력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아. 돼지는 서열이 있어 합사하면 서열다툼의 싸움이 일어난다. 특히 웅돈은 사생결단의 투쟁이 일어난다. 웅돈을 이동 시킬 때 웅돈끼리 조우(갑자기 만남)는 절대 금물이다.

만일 싸움이 벌어지면 인력으로는 말리기(떼어놓기)가 어렵다. 이때는 합판 또는 합석류 등으로 웅돈 상호의 눈을 가려주면 떨어진다. 이 때 화난 돼지는 사람에게 덤비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자. 수퇘지는 충분한 태양광선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득히 태양광선을 받지 못하면 하루 12시간 이상 300룩스의 광선을 비쳐 주어야 한다.

차. 가급적이면 교배 돈방을



지정 운영하는것이 수태율이 5%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교배돈방을 수퇘지나 암퇘지 모두 만족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안정된 교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카. 교배돈방이 없으면 모든 을 웅돈방에 데려가 넣어준다 (웅돈에 안도감을 주기 위하여).

타. 웅돈은 계절적 관리가 중요하다.

(1) 돼지는 땀샘이 없어 체내 열을 발산하려면 입을 통해 발산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웅돈은 여름을 싫어한다(26°C 이상). 웅돈은 더위로 인하여 활력이 저하되고 정충조성이 저하되는 등 승가 기피현상이 온다. 이러한 현상은 봄철부터 시작된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과열량 사료를 줄이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택하여 피하

지방을 줄이고 정력과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타민제의 보급이 필요하다.

돈사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게 그늘막을 설치하고 선풍기, 통풍장치 등을 가동하여 실내온도를 낮추어 주어야 한다.

(2) 겨울철 관리는 여름철 관리와 반대로 고열량사료를 증가급여 하고 돈사온도를 -18°C 이하로 하강하지 않게 한다. 특히 수일간 -15°C 이하로 하강하시는 정충생성이 감소되고 고환의 냉각현상으로 갈라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웅돈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수태율 저하와 승가거부의 원인이 된다. 겨울철 웅돈방엔 깔짚이나 톱밥을 충분히 넣어주고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게 한다.

파. 웅돈의 사용년수와 사용횟수

종돈의 사용년수는 4년 이내

로 하며(4년 이상 사용시 산자수가 감소된다) 연속적으로 사용시(주 4~5회이상 번식성적은 1/4 또는 1/5로 감소된다) 적정 사용횟수는 주당 2~2.5회이며 휴식기간은 14일을 초과할 경우 최초 교배 산자수보다 낮아진다.

4. 웅돈의 이용법

가. 수퇘지와 암퇘지의 사육비율은 그 농장의 관리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첫째 : 연간 모든 회전수

둘째 : 이유일령의 장단

셋째 : 한 모돈의 교배횟수
(2회 또는 3회)

넷째 : 다른 웅돈과 혼합교배 가능성

다섯째 : 종부사의 기술 정도

여섯째 : 인공수정 계획의 유무

일곱째 : 보유하고 있는 웅돈의 연령

여덟째 : 그 농장의 재발정율

나. 웅돈의 소요량 결정

농장에서 2회 종부나 3회 종부나에 따라 웅돈의 소요수가 달라진다. 한 모돈에 2회 종부의 경우보다 3회 종부를 결정하고 3회 종부의 경우는 2회때보다 약 2%의 소요수가 늘어난다. 또한 하절기에는 5%까지

〈표3〉 웅돈 월중 활용 계획표

일 웅돈명	1	2	3	4	5	6	7	8	9	10		비고
A-1	(101)			(108)	(111)			(121)				어린돼지라 휴식시간을 길게 잡음
B-2				(104)	(112)			(118)		(125)		
C-3			(102)			(109)		(115)				
D-4				(105)		(113)		(119)				
E-5				(103)	(106)		(114)	(116)	(120)		(127)	
F-6						(107)		(117)		(123)		(130)
G-7								(110)				노쇠돈이라 휴식을 길게 잡음

* 도표 설명

가. 매월말에 월간 웅돈 활용 계획표를 일자별로 작성한다.

나. 윗줄 는 그날의 사용계획임.

다. 밑줄(101)은 모든 번호임.

* 도표 분석

1. A-1은 어린돼지라 휴식시간을 길게 잡았으나 4일에 벌정돈이 많아 부득이 사용되었음.
2. B-2, C-3, G-6은 정상 사용되었음.
3. D-4는 8, 9일 중복 사용되었음.
4. E-5는 너무 자주 사용하여 혹사시켰음.
5. G-7은 노쇠돈이라 길게 휴식기간을 잡고 도태 예상돈임.

증가시켜야 한다. 하절기의 정자 생성율과 활력의 감소로 수태율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20:1두 비율이 능률적이라고 정설이 되어 있으나 근간에는 15:1 이하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다. 성성숙된 웅돈은 주당 2~2.5회 사용하며 이상적인 횟수는 2일에 한번 끌이 적합하다. 연속 사용시는 정자수가 감소되어 재발정이 많고 산자수도 줄어든다.

라. 계절적으로 수요가 늘어 나는 여름과 겨울철을 위하여

과도한 수의 수퇘지의 사육은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인공수정으로 수퇘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경제성을 고려한 사육 방법이 될 것이다.

마. 비육돈을 생산할 목적일 때에는 여유있는(휴식한) 웅돈을 교대로 사용함도 경제성을 고려하는 한 방법이다.

바. 웅돈중에는 말을 잘들어 사용하기 편한 것이 있는 반면, 종부시키기 위한 이용시 또는 종부간 관리자가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사. 이런 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종돈 사용기록판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까닭은 일잘하는 웅돈만 혹사하고 노는 웅돈은 계속 놀려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웅돈활용기록판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아. 상기 도표를 월말에 분석하면 웅돈 E-5로 종부한 114, 116, 120, 127 모돈의 수태가 걱정되며 특히 재발정이 올 우려가 있고 임신이 되었더라도 산자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